

자하 하디드의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 건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onstructionist feminist architecture of Zaha Hadid

이란표* / Lee, Ran-Pyo

Abstract

Jacques Derrida, a leading theorist of the post-structuralism, has explicated how the material reality is subordinated to the ideality of form, by noticing the platonic concept, 'chora', which implicates the spatiality as the matrix and also by actualizing its essential meaning as the femininity. On the basis of the idea of the platonic 'chora', the Derridian deconstructive spatiality and its feminist oriented enlargement of Grosz this study is purposed to elucidate the architectural idea of Zaha Hadid that is located in the similar horizon with the deconstructionism. On the one hand it is focused on the explication of the new concept of space, which is dealt with the deconstruction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space, on the other on the inference of the feminity of the originally understood spatiality.

With this inference it is finally intended to reexamine the foundation of the discussion for the architectural space that must be ahead of the discussi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sculine and the feminine space. If it is fundamentally and manifoldly executed, not only the architectural paradigm will enter into an renewed phase, but also the various ways toward the new direction of the architecture be explored.

키워드 : 매트릭스, 탈구조주의, 페미니즘, 코라, 부유의 공간

Keywords : Matrix, Post-structuralism, Feminism, Chora, drifting space

1. 서론

인문학 및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의 영역에서 주된 논의 대상 중의 하나이자 현실적으로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테마인 페미니즘은 건축영역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 일반을 어떠한 범주로 규정하고, 어떠한 영역에 적용시키며,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논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건축의 영역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는 표면적으로 볼 때 건축적 담론들에 기대어 수행하는 문화연구의 일환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성(性) 구분과 무관해 보이는 영역에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논의로 생각되어 왔다¹⁾ 더구나 건축가와 여성 건축가 사이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는 '여성 건축가'라는 명칭 자체가 건축에 있어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막연한 도전으로 비춰지곤 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들에게도 아직은 낯설은 테마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성 건축가들은 차라리 지적인 열정과 비판적인 객관성이라는 중립적인 기준들에 따라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성이야말로 암묵적이건 가시적이건 사회적인 성차별에 기초해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이란 우리 모두가 '인간일반'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수용 가능한 수단일 뿐이다. 수잔 보르도(Susan Bordo)에 따르면, 사회적 성 구분에 의해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에서는 "그 누구도 단순히 인간적일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지성사 그리고 사회형태들 모두가 성적으로 구별되어 있기"²⁾ 때문이다. 이 같은 성적인 구별은 건축 영역에서도 다를 바 없다. 마크 위글리(Mark Wigley)에 따르면, 실제

1)Mark Wigley, Untitled: The Housing of Gender, in: Sexuality & Space, ed. by Beatriz Colomina,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2. 참조.

2)Susan Bordo, Feminism, Postmodernism, and Gender-Scepticism, in: feminism/Postmodernism, ed. by Linda J.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1990, p.149.

* 정회원,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전임강사

고용상황, 강의체계, 대중적 이미지, 봉급수준, 직업윤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신용대출의 경우에도³⁾ 성적인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조건과 가치를 주장한다면, 즉 남녀의 평등만이 강조된다면, 이것은 또다시 여성이기주의 내지는 Judy Grant(Judith Grant)의 말대로 자기 이익만을 강조하는 '집단적 페미니즘'⁴⁾으로 기울게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상적인 남녀 성 관계의 변화를 통해 건축문화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 담론은 성적으로 구별된 사회적 권력 관계와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곧바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사회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영역에서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물음이며 건축의 영역과는 무관하거나 덜 긴요한 문제로 보인다. 오히려 건축 담론의 영역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공간성에 대한 이해의 배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 담론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은 남성중심주의의 지배 하에서 발전되어온 전통적인 이론들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테올로기적 권력관계와 이념적 위계질서의 지배 하에 놓여왔던 공간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한편으로 새로운 공간이념을 구축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적인 의미의 공간개념에 내재해 있던 '여성성'의 이념을 현재적인 의미로 활성화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서구의 남성(혹은 이성)중심적인 전통을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성구별을 넘어선 페미니즘적인 논의의 기반을 제공해준 후기구조주의 사상을 방법론적인 동시에 내용적인 근간으로 삼고자할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데리다(J. Derrida)는 남성중심주의적인 서구 전통 형이상학의 아버지인 플라톤에게서 여성성의 모태로서 공간성 이념의 기초가 되는 '코라(chora)' 개념과 그 개념의 가치절하에 주목하면서, 물질적 실재성이 이념의 형식들에 비해 어떻게 종속되어왔는가를 설명하였다. 데리다의 이 같은 공간성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자는 그의 '탈구조주의(Deconstructionism)' 사상과 유사한 지평에 놓여 있는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건축이념을 분석하면서 한편으로는 전통적 공간 개념에 대한 '해체구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공간개념을 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 개념의 여성

성을 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여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의 여성성 개념의 추론과 더불어 본 연구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구별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논의의 기반에 대한 재검토이며, 이러한 기반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건축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건축방향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공간의 여성성 개념을 정초시키기 위해 전통 형이상학의 대표자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요소 중 마지막 요소인 유모 또는 자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코라(chora)'에 대한 분석, 『그라마톨로지』, 『철학의 변방』 등과 같은 저서들을 통해 이성중심주의적인 서구의 전통적 사상들을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해체구성 하고자 하였던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공간개념 분석, 그리고 플라톤의 '코라' 개념과 이것을 다시금 해체 구성하고자 하는 데리다의 '코라' 개념을 공간성의 이해에 적용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엘리자베스 그로스(Elisabeth Grosz)의 건축적 페미니즘 등이 다뤄질 것이다.

플라톤, 데리다, 그로스 등을 다루는 이론적 과정에서 건축 담론과 이 담론의 중심적 범주인 공간개념을 새로이 정의 내릴 필요가 대두될 것이다. 즉 건축 이론가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건축가들은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재 고찰과 더불어 새로운 전망과 새로운 거주방식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천적 부분으로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기초 하에서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이론적 부분에서 추론될 수 있는 여성성으로서의 공간개념은 생성과 운동을 작용케 해주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해준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주인 또는 지배자가 머무는 장소라든가 의미나 진리의 단순한 전달매체라는 기존의 공간개념과는 달리, 여성성으로서의 공간은 역동성을 담아내고 지속적으로 활력을 주는 공간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이해에 기초한 건축은 건축가의 이념이라든가 특정한 이용목적만을 단순히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생한 삶의 표현인 동시에 주변 환경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자는 자하 하디드의 여러 건축 디자인 중 이러한 이념이 잘 드러나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 예들로서 LF One, Singapore VISTA Masterplan, 볼프스부르크의 과학센터, BMW 공장 설계 등을 살펴 보면서, 몸체와 구조의 관계를 에너지와 운동의 소통이라는 고유의 건축이념에 따

3)Mark Wigley, Untitled: The Housing of Gender, in: Sexuality & Space, 1992, p.329.

4)Judith Grant, Fundamental Feminism: Contesting the Core Concepts of Feminist Theory, New York: Routledge, 1993, p.188.

라 역동적으로 정초시킴으로써, 해체와 자기구성을 반복하는 동적인 공간을 구상하였던 자하 하디드의 건축을 분석해볼 것이다.

본 논문이 안고 있는 한계는 자하 하디드 자신이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탈구조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하디드의 건축을 분석한 시도가 없기에 본 논문의 논의가 다소 주의주의적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하디드의 건축을 탈구조주의 건축으로만 해석해온 기존의 논의에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의 시각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생산적일 수 있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여겨진다.

1.3.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공간개념의 본래적인 의미를 플라톤으로부터 재해석하고 이에 대한 현대적 해석양상을 제시한 데리다, 그로스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래적인 공간개념의 함의를 추론한 후, 자하 하디드의 건축이 지니는 탈구조주의 건축미학의 측면과 탈구조주의 페미니즘적 건축의 측면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그녀의 건축이념에 자리 잡고 있는 '매트릭스적 건축'의 기본 사고를 재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2. 페미니즘적 공간이해

2.1. 플라톤의 코라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눈에는 보이지 않고 생각될 수만 있는 “모범적인 유형”이며, 두 번째는 생성과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으로서 “첫 번째 유형의 모방”⁵⁾이다. 플라톤은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는 첫 번째 유형을 생성의 모범적 근원으로서 ‘아버지’에 비유하는 반면, 항상 변화하는 두 번째 유형을 아들에 비유한다. 그는 여기서 아들의 잉태를 담당하는 세 번째 요소를 유모 또는 자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코라(chora)’ 혹은 ‘매트릭스(matrix)’로 규정한다. ‘생성을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코라’는 불변의 모범적 근원으로서의 첫 번째 유형으로부터 기인하는 가변적이고 가시적인 생성에 일정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어머니 또는 여성에 비유될 수 있는 이러한 코라를 플라톤은 공간으로 규정한다. 즉 ‘코라’는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이고 아무런 형태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⁶⁾이자, 가시화 되고 생성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모범적 근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성과 운동에 작용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균등한 힘들’로 채워져 있는 모범

적 근원이나 속에 있는 ‘유사한 힘들’로 채워져 있는 생성과는 달리 코라, 즉 공간은 “도처에서 불균등하게 부유하면서 다양한 힘들에 의해 끊임없이 진동되며 움직여진다 그리고 움직여진 기본소재들은 서로서로 구분되어 이리저리 분산된다”⁷⁾. 그리하여 그 자체로는 모범적 근원과 생성의 다양한 힘들에 의해 진동된 것이면서도 “진동을 위한 도구”⁸⁾이기도 한 코라에 의거하여 세계의 각 부분들은 저마다 제 위치를 잡아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플라톤이 모범적 근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성과 운동의 작용기반으로서 ‘코라’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우주를 구성하는 첫 번째 유형, 즉 모범적 근원을 상위에 놓았으며, 그 결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서구의 전통적인 사상들은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변함없이 영원한 존재, 비가시적 진리 등에 비해 아들의 위치에 있는 변화무쌍한 생성, 가시적 현상과 어머니 혹은 여성의 위치에 있는 공간, 재료 등을 가치절하 해왔던 것이다.

2.2. 데리다의 공간개념

플라톤 이래로 현대까지 지속되어온 다양한 이성중심주의적 담론들을 해체구조하고자 하였던 데리다는 서구 형이상학 전통이 글의 매개적 위상보다 말의 직접성을 특권화시키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공간개념의 종속과 결부시킨다. 그는 자신의 주저 중의 하나인 『그라마톨로지』에서 플라톤으로부터 루소, 헤겔, 쇼쉬르 등에 이르는 전통 형이상학의 대표자들에게서 글이 어떻게 공간과 동일시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통 형이상학이 “자기현존을 방해하는 ‘외재적이고’, ‘감각적이며’, ‘공간적인’ 시니피앙의 환기”⁹⁾에 다름 아닌 글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루소에게서 글에 대립되는 음성은 “공간을 넘어서며 외부로 지배하는 것”¹⁰⁾으로서 “공간에 의해 기의화되는 죽음과도 같은 것”¹⁰⁾으로 규정되었다고 한다. 결국 구래의 형이상학 전통에서 공간은 외부에 머물러 있음으로서 효과적으로 지배되어왔으며, 따라서 글과 외부 그리고 공간은 로고스 또는 정신적 음성과 내부를 위해 종속적 위치로 내몰렸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로고스 또는 정신적 음성이 위치해 있는 내부가 공간이 아니라 ‘공간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죽음과도 같은 공간인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공간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 또는 음성이 단순히 내부를 공간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듯이, 글 또한 외부를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는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러

7)Ibid., S. 175.

8)Ibid., S. 175.

9)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by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98.

10)Ibid., p.196.

5)Platon, Timaios, in: Sämtliche Werke Bd. 5, hrsg. v. Ernesto Grassi und anderen, Hamburg 1959, S. 171.

6)Ibid., S. 173.

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초로 공간을 산출하는 것은 정신적 음성과 내부를 보존하기 위해 글과 공간을 외부로 배제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은 단순히 '공간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생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데리다가 글에 부여하는 공간의 위상이 해명된다. 데리다에게서 글이란 "우연적 사건으로서의 이미 구성되어진 공간에 밀려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공간성을 산출하는 명문화 가능성"¹¹⁾인 것이다.

기입된 내용을 단순히 저장하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지속적인 명문화를 이루는 동적인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데리다는 '공간화(Spacing, espacement)'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공간화란 사물들이 각자 서로에 대해 외재적인 동시에 공간 자체가 다른 영역에 대해, 즉 공간이 없는 영역에 대해 외재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간화란 다양한 형태의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로서, 기표들 사이의 공간적 거리, 기호들 간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의 효과를 뜻하는 것이다. 결국 데리다적인 의미의 공간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르고 구분하여 그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담지한 공간을 개시하는 "생성적 공간"¹²⁾인 것이다.

2.3. 그로스의 건축적 페미니즘의 공간이해

건축과 철학의 경계로부터 새로운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그로스는 플라톤의 코라개념을 재해석하는 동시에 데리다를 비롯한 후기구조주의 이론가들의 공간개념에 기대어 새로운 공간개념을 제시한다. 그녀는 플라톤의 코라개념이 물질을 존재케 해주는 동시에 존재의 가능성 기반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제기한 "사이공간(in-between)"¹³⁾이 그것에 닮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사이공간'은 "공간은 아니면서도 자기 자신의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간으로서,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형태를 자신의 외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즉 동일성의 외부라는 형식을 갖는 외부로부터 취하는 공간"¹⁴⁾이다.

운동과 발전 혹은 생성의 공간으로서의 사이공간의 이념은 그로스에 따르면, 이미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고 한다. 항상 일정한 형태로 동일화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잠재적 힘이자 역동적인 가상공간을 규명하고자 했던 들뢰즈(G. Deleuze), 데리다(J. Derrida), 세레스(M. Serres), 이리가레(L. Irigaray) 같은 후기구조주의 이론가들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동일성 형태들이 작용하도록 해주었던 생성의 공간을 '경계화와 전복의 공간'¹⁵⁾으로 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그로스는 사이공간의 이념을 페미니즘과 연결시킨다. 전통적인 서구사상들은 이원론적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결국 남성중심주의적인 동시에 유럽중심주의적인 '팔루스로고스중심주의(Phallogocentrism)'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로스는 특히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인 이리가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리가레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 내에서 여성은 그 자체로 소거되어 있다. 즉 여성을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의 상상적인 대립물로서 남성에게 의해 배제되고 타자화된 여성의 유명 혹은 가상이 여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반면 사이공간은 "타자로 하여금 동일자의 타자라는 위치로부터 자기 자신을 생성시키고 더 나아가 또 다른 관계를 재구성하게끔 해주는 것"¹⁷⁾이다.

이러한 사이공간 개념에 기초하여 그로스는 건축적 페미니즘의 기본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리가레에 의거하여 그녀는 공간성과 결부되어 있는 여성성의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성이란 "수수께끼 같은 토대이자 실체이며 또한 물질적인 무차별성으로서 [...] 남성성의 기원이자 이러한 남성성이 자신의 반성된 모습을 발견하는 대상들의 기원이다. 따라서 여성성은 남성적인 자기전개의 공간 혹은 매트릭스이다"¹⁸⁾. 둘째, 여성성은 그 자체로 텅 빈 것이자 혼돈이기 때문에 동질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을 산출할 수 없다. 그리하여 여성성은 일정한 좌표와 체계의 기능요소들을 무시하는 역동적 매트릭스이다. 결국 여성성으로서의 매트릭스 공간은 남성적이고 규범적인 것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주체로서 위치지울 수 있게 해주는 "장소를 가지지 않는 장소"를 대변하는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장소로서만 기능하는 장소"¹⁹⁾를 특징짓는 것이다.

<표 1> 플라톤, 데리다, 그로스 비교

기본 요소	플라톤	데리다	그로스
여성성 이해	자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코라(choral)' 혹은 '매트릭스(matrix)'	공간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르고 구분하여 그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담지한 공간을 개시하는 '생성적 공간'	남성적인 자기전개의 공간 혹은 매트릭스, 일정한 좌표와 체계의 기능요소들을 무시하는 역동적 매트릭스
공간이해	가시적이고 가법적인 것에 일관해 주는 것	다양한 형태의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로서, 기표들 사이의 공간적 거리, 기호들 간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의 효과	자기 자신의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간으로서,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형태를 자신의 외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즉 동일성의 외부라는 형식을 갖는 외부로부터 취하는 공간
공간 및 여성의 지위	변함없이 영원한 존재, 시적 전리 등에 비해 가치 절하	로고스 또는 정신적 음성이 위치해 있는 내부로서의 공간을 비판하면서, 공간의 생산 그 자체 또는 공간의 공간성을 산출하는 명문화 가능성 강조	남성적이고 규범적인 것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주체로서 위치지울 수 있게 해주는 "장소를 가지지 않는 장소"를 대변하는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장소로서만 기능하는 장소"

11)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p.290

12)Derrida, Jacques, Positions. Interview with Julia Kristeva, trans. by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27

13)Grosz, Elizabeth,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Essays on Virtual and Real Spac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2, p.91

14)Ibid., p.91

15)Ibid., p.93

16)Ibid., p.94

17)Ibid.,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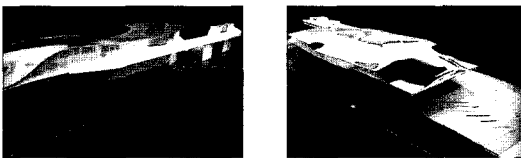
18)Ibid., p.158

19)Ibid., p.159

3. 자하 하디드의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 건축

3.1. 비틀림과 부유의 공간: 자하 하디드의 공간언어

후기구조주의 혹은 탈구조주의의 경향을 체현하는 대표적 건축가로 인식되어 온²⁰⁾ 자하 하디드는 시간적인 흐름과 공간적인 역동성을 다시점 표현도면²¹⁾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현대 건축에 있어 새로운 형식언어를 창출하였다. 그녀의 여러 표현도면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도면들에서는 위아래, 전후가 없는 서로 역동적으로 얽혀있는 다양한 운동공간들이 표현되고 있다. 마치 무중력 상태의 공간과도 같이 무한히 뻗어있는 공간 안에서 일련의 형태들은 부유하듯 떠다닌다.



<그림 1> View from water, Salerno Maritime terminal, 1999

시점 또한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관찰자는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 하나의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으로 옮겨 다니게 된다. 이 같은 표현방식의 기저에는 건축과 지반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땅이라는 이차원적 표면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입체적 공간이 구성되어 간다는 정적인 공간이해와는 달리, 그녀는 흐름과 운동중에 있는 여러 지점들로부터 지각된 것을 표현해 내고자 함으로써, 표현된 것의 산물로서의 건축물과 지반 및 주위환경 사이의 해소될 수 없는 차이를 공간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반과 주위환경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하나의 건축물을 유입시키는 과정을 건축이라고 한다면, 건축이란 그러한 맥락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이며, 이러한 현재화 작업은 건축물과 지반 및 주위환경 간의 차이를 공간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화는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이고 아무런 형태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시적인 생성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가능하며, 도처에서 불균등하게 부유하면서 다양한 힘들에 의해 끊임없이 진동되며 움직여지는' 플라톤의 여성적 코라처럼 공간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로 하여금 제 자리를 잡아가게 해준다.

또한 그러한 차이의 공간화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르고 구분하여 그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담지한 공간을 개시하는 "생성적 공간"인 데리다의 공간화처럼 '다시점 투사, 다중 비틀림, 파편화 및 탈 정형화'²²⁾를 통해 자기

장 공간, 미립자 공간 등과 같은 끊임없이 휘어지고 비틀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을 열어놓는다. 더 나아가 자하 하디드의 공간화 개념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수직성과 플라톤적인 이상적 단순성의 자의적 형식주의"²³⁾로부터 탈피하여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다양한 가능성들로 이루어진 유한한 질서로부터 출발한다.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유한한 출발지점은 끝없는 변형과 재생산논리의 한 지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며, 이러한 논리는 결국 '변종(Mutation)²⁴⁾을 기본 축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종의 논리는 프로그램화된 기능성 대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보다 정확히 말해 실현을 통해 굳어져버릴 수 없는 잠재적 가능성의 구동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변종의 논리에 의거한 자하 하디드의 공간화는 한편으로는 아버지로 비유되는 불변의 모범적 근원에 따라 아들로 비유되는 가변적이고 가



<그림 2> New campus centr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Chicago, 1997 - 98

시적인 생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본래적 의미의 여성성, 즉 코라 혹은 매트릭스라는 플라톤적 공간개념에 부합되며, 다른 한편으로 그 자체로는 동질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을 산출할 수 없지만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규범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하여금 스스로 주체로서 자기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동적 매트릭스에 부합된다. 결국 자하 하디드의 공간화로서의 공간은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에서 주장되는 본래적인 의미의 여성적 매트릭스 공간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3.2. 미완의 완성으로서의 건축 - '공간화'로서의 공간의 건축



<그림 3> LF one Landesgartenschau, Weil am Rhein, 1999

여러 건축물 중 '공간화'의 가능성이 잘 드러난 건축물은 1999년 독일의 바일 암 라인에서 열린 국제 가든쇼를 위한 구조물인 LF One이다. 이 전시회 프로젝트는 삼각주, 산맥, 숲, 사막, 협곡, 유동빙하, 대양등과 같은 자연 조경형태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새로운 유동적 공간성들을 이끌어 내려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기존의 도시 건축공간들과는 달리 자연적 조경공간들에서 보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공간들 사이의 경계설정

20) Sonia Baldessarini, *Wie Frauen bauen, Aviva*, 2001, S. 164
21)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박영호, 자하 하디드의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다시점 표현기법의 활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3권 5호, 2004 참조

22) Zaha Hadid, *Architektur//Architecture*, hrsg./ed. Peter Noever, Hatje Cantz Verlag, Ostfildern-Ruit, 2004, S. 15
23) Ibid., S. 18
24) Ibid., S. 18

이 다양한 동시에 미묘하며, 또한 공간들 간의 이행이 분명하지 않고 완만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건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특징들은 질서와 명료성의 결여로 이해될 수 있지만,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질서의 창출 가능성을 예시해주는 좋은 예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다발(space-bundle)²⁵⁾’이라고 불리우는 전시관은 자연적 조경의 가장 자유로운 측면을 상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 Bundle of paths,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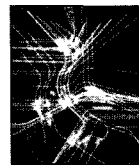
전시관은 공간을 내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싼 주변공간으로 흘러들어가며, 여러 갈래의 길들이 교차된 지점으로부터 점차로 모습을 드러낸다. 건물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방문객의 몫이 된다.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방향과 리듬 그리고 이리저리 얽혀 있는 구조가 서로 어우러짐으로써, 정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는, 그렇지만 시각적인 파장들과 영역들 간의 중첩들이 응집되어 있는 하나의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 공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림 5> Exhibition hall, Side view, 1999

자하 하디드에게 있어 자연조경공간들의 형태의 공간화라는 테마는 20년 이상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아 왔던 도시건축에서 가장 명료히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건축은 2001년 싱가포르 도시계획 공모전 1등상을 받은 VISTA Masterplan이었다. 전체 플랜은 도심 바깥에서나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에서나 뚜렷이 보이도록 독특한 스카이라인과 파노라마를 연출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심 장소들과 골목들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도심의 부분 공간들 내에서 역동적인 공간감을 주는 디자인에 따라 구성되었다. 부드럽게 굴곡진 대도시의 형상은 현재의 대도시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간적 응집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붕들이 열을 지어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듯이 디자인되어 굴곡진 하나의 전체 표면이 형성됨으로써, 통일성과 유기성이 달성되며 높고 평평하고 넓고 작은 다종다기한 건물들의 다양성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을 유도하는 종합적 힘에 종속됨으로써, 다양성 내의 통일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림 6> Deformed grid



<그림 7> Isometric overview, Singapore - Vista masterplan 2001

기하학적 형태들을 일정하게 구상하여 이에 부합된 설계에 따라 실제 건축을 수행할 경우 입지조건들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원래 구상된 형태들이 변형될 수 있는 반면, 자하 하디드의 경우 ‘형태는 실현 단계마다 형태화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미의 체계 속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²⁶⁾. 결국 유한한 완성이 아니라 무한한 미완의 유기적 전체성이야말로 자하 하디드가 표방하는 건축적 공간화의 형식언어인 것이다.



<그림 8> Science center Wolfsburg, 1999

또 다른 공간화의 예로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건립되고 있는 폭스바겐 콘체른 ‘과학센터(Science Center Wolfsburg)’를 들 수 있다. 과학센터는 한편으로는 새로 건립된 폭스바겐 ‘자동차도시(Autostadt)’와 연



<그림 9> View into the interior, Rendering, 2001

결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역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도시 한복판의 북쪽 끝 자락과 연결되어 있다. 결국 복합적인 교차점을 체현하고 있는 이 건축물은 여러 갈래의 운동방향들을 통해 도심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며, 도심의 중요한 건축물들의 축이 과학센터 건물로 연장되어 하나로 모이는 듯하다가 다시금 ‘자동차 도시’로 향한 여러 갈래의 방향으로 퍼짐으로써 도심 한복판과 ‘자동차도시’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유기적 결합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10> Cone under construction, 2003

복합성과 낮설음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가능케 하기 위해 건물은 특이한 체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겹겹이 쌓인 구조도 아니고 하나로 길고 넓게 늘어선 지붕을 가진 대형 홀 구조도 아닌 과학센터는 거대한 육면 입방체 위 아래로 돌출해 있는 깔대기 모양의 원추형체들에 의해 지지되고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원추형체들 중 몇몇은 입방체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로, 다른 원추형체들은 실내공간의 조명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원추형체들은 필요한 서비스

25) Zaha Hadid, 4 Vols, hrsg. Gordana Fontana Giusti, Patrik Schumacher, Basel, Birkenhauser, 2004,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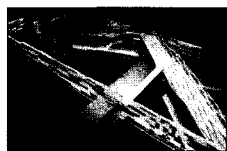
26) Zaha Hadid, Architektur//Architecture, hrsg./ed. Peter Noever, Hatje Cantz Verlag, Ostfildern-Ruit, 2004, p.80.

기능을 위해 디자인 되어 있다. 원추형체들의 모양은 주변의 도시건축의 축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 역시 도시의 흐름과 같은 유기적인 형상을 지닌다. 그리하여 원추형체 중 하나는 건물의 출입구가 되고, 다른 하나는 강연회장이 되며, 나머지는 거대한 전시공간으로 용해되어 있다.

조명 역시 건물에 접근하는 방식과 속도에 따라(예를 들면 도보, 자동차, 기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설계되며, 자유로이 이동하는 건물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강철콘크리트가 사용된다. 결국 이렇게 디자인된 과학센터는 주위의 다양한 구조들을 응축과 치환의 형식언어로 변환시켜 하나의 새로운 유기적 공간을 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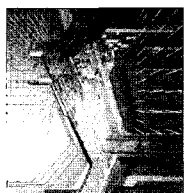
<그림 11> Study model, Entrance, Exhibition Hall, Interior view, 2001-2002



<그림 12> BMW plant, central building, Leipzig, Competition model, 2002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의 매트릭스적 공간화가 가장 명확히 표현된 곳은 무엇보다 독일 라이프찌히에 건립될 BMW 자동차 공장 중앙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건물은 거대한 공장 건물 컴플렉스의 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공장 신경망의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공장 전체의 움직임들이 각 부분에서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 하나로 응집되고 다시금 뿔어 나간다.



<그림 13> Perspective plan view, Rendering, 2003

이 같은 이념의 표현을 위해 자하 하디드는 중앙 건물을 다양하게 응집되는 흐름들의 정점으로서 정교화 시켜주는 역동적인 공간체계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디자인 컨셉은 공장 컴플렉스 전체가 마치 중앙 건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의 파장들에 의해 생명력을 얻고 일정하게 방향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공장 컴플렉스 전체에서 모인 움직임들은 세 개의 주요한 생산 영역인 차체 제작라인, 도색라인, 조립라인 사이에 위치한 이러한 응축실을 관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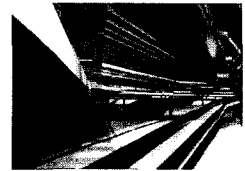
기본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들과 선들이 이루는 유기적 조직화와 분산 그리고 통합적인 흐름 등은 중앙건물의 정면 투시도에 그대로 옮겨졌다. 측면의 표현형태들은 바닥판이 놓이는 방향과 관계되며 건물 내부와 외관의 중간틀과 창문 그리고 패널 디자인에서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유기적 건축은 더 이상 미리 고안된 형태들로 수행

되는 건축이 아니라 건축공간의 특수성에 부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결지점들을 고려하면서 “일련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단절없는 하나의 완결된 전체”²⁷⁾로 조직화하는 건축인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수많은 형태들과 방향들을 파편화 시킴없이 하나로 집적시켜주는 비틀림의 형태학이다.



<그림 14> Roofscape, 2003



<그림 15> Terraced office scape, 2002

결국 BMW 중앙 건물 건축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생성공간에 다가가고자하는 매트릭스 건축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표 2> 건축 프로젝트 비교분석

건축물	여성적 공간이해	코라적 공간화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 특성
LF One Landesgartenschau, Weil am Rhein	자연적 조경공간에 있어 공간들 사이의 경계설정이 다양한 동시에 미묘하며, 또한 공간들 간의 이행이 분명하지 않고 완만하다는 것을 포착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질서의 창출 가능성이 예시	다양한 방향과 리듬, 복합적 구조가 서로 어우러짐으로써, 비가시적인 동시에 시각적인 파장들과 영역들 간의 중첩들이 응집되어 있는 하나의 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 공간 창출
Singapore - Vista masterplan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도심 골목들과 장소들을 도심 바깥에서나 도심 한 가운데에서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파악	굴곡진 하나의 유기적 전체 표면의 디자인을 통해 통일성과 유기성 그리고 다양성이 하나의 흐름을 유도하는 종합적 힘에 증속되도록 하여, 다양성 내의 통일성이 실현	기하학적 체계에 의거한 유한한 완성이 아니라, 자연적인 미의 체계 속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미완의 유기적 전체성 실현
Science center Wolfsburg,	건축가들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도시의 특별한 곳, '자동차 도시', 도심의 끝자락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대한 매트릭스적 공간이해	다양한 공간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을 수행하는 허브 기능 부각	복합성과 낯설음을 통해 다양한 공간체험을 가능케 해주는 체적 구조를 실현하고, 주위의 다양한 구조들을 응축과 치환의 형식언어로 변환시켜 하나의 새로운 유기적 공간을 개시
BMW plant, central building, Leipzig	거대한 공장 건물 컴플렉스의 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공장 신경망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화 설정	다양하게 응집되는 흐름들의 정점으로서 정교화 시켜주는 역동적인 공간체계를 명료하게 부각	공장 컴플렉스 전체가 마치 중앙 건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의 파장들에 의해 생명력을 얻고 일정하게 방향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됨으로써, 일련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단절없는 하나의 완결된 전체로 유기화

4. 결론

자하 하디드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건축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부합되는 새로운 표현미학을

27) Zaha Hadid. Architektur//Architecture, p.75.

창조하였다. 비록 자하 하디드 자신이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탈구조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하디드의 건축을 분석한 시도가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한계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조화와 비율을 근간으로 하는 정적인 공간개념에 대립하여 다양한 공간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공간화의 가능성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던 하디드는 생성을 가능케하는 공간 혹은 공간화로서의 매트릭스, 다시 말해 본래적 의미의 플라톤적 여성성을 현재화 하고 있는 건축가라고 규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라톤적 여성성은 탈구조주의 이론가인 테리다의 공간화 개념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항상 새로운 의미를 담지한 공간을 개시하는 생성적 공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탈구조주의 페미니즘적 공간에 기초한 자하 하디드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녀의 건축은 자연적이건 인위적이건 기존의 공간들로부터 새로운 유동적 공간성을 끌어내어, 분명한 경계구획과 균일한 형식언어에 기초한 기존의 공간이해와 체험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질서의 창출 가능성을 대립시킴으로써, 정적인 가시공간이 아니라 동적이고 비가시적인 체험공간을 개시하고자 한다.

둘째, 그녀의 건축의 핵심이기도 한 주요한 형식언어는 바로 다양한 움직임들이 이루는 힘의 중력장의 가능화 근거인 허브의 창출이다.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힘의 중력장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의 유기적 조직화는 그 자체로는 힘도 아니고 특정한 캐릭터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변의 공간들에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역으로 힘의 유기적 응축과 분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공간화 허브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건축이념의 기저에 놓여있는 매트릭스적이고 코라적인 공간성으로서의 여성성 개념은 남성/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질서 내지는 이데올로기적 질서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현대 건축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공간개념이다. 그녀 자신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공간개념은 탈구조주의 페미니즘적으로 이해된 여성성으로서의 매트릭스 공간에 부합된다. 여성성으로서의 매트릭스 공간은 그녀의 건축을 통해 부유와 비틀림 그리고 플라주와 하이브리드의 형태학을 통해 실현된다. 그 결과 구조화된 건축물은 조화와 균형의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한 그물망 속에서 일어나는 예견될 수 없는 '우연적 사건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자하 하디드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새로운 체험 공간의 창출에 건축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최근에 그녀가 자신의 건축에 대해 피력한 말에서도 그대로 입증된다: "각각의 모든 계획을 조직하고 기획하며 표현해내는 작업은 훨씬 더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다 [...]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다른 식으로도 지각할 것이며, 그 속에

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뿐 만 아니라 공간들을 다른 식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공간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참고문헌

1. 박영호, 자하 하디드의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다시점 표현기법의 활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2004.
2. Baldessarini, R. Sonia, *Wie Frauen bauen*, Aviva, 2001.
3. Bordo, Susan, "Feminism, Postmodernism, and Gender-Scepticism", in: *feminism/Postmodernism*, ed. by Linda J.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1990.
4.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by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5. Derrida, Jacques, *Positions*. Interview with Julia Kristeva, trans. by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6. Mark Wigley, *Untitled: The Housing of Gender*, in: *Sexuality & Space*, ed. by Beatriz Colomina,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2.
7. Grosz, Elizabeth,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Essays on Virtual and Real Spac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2.
8. Grant Judith, *Fundamental Feminism: Contesting the Core Concepts of Feminist Theory*, New York: Routledge, 1993.
9. Platon, *Timaios*, in: *Sämtliche Werke Bd. 5*, hrsg. v. Ernesto Grassi und anderen, Hamburg 1959.
10. Zaha Hadid. *Architektur//Architecture*, hrsg./ed. Peter Noever, Hatje Cantz Verlag, Ostfildern-Ruit, 2004.
11. Zaha Hadid, 4 Vols, hrsg. Gordana Fontana Giusti, Patrik Shumacher, Basel, Birkhauser, 2004.
12. Zaha Hadid, *Vitra Fire Station*. Aedes Galerie und Architekturforum, Berlin 1992.
13. Zaha M. Hadid- *LF one. Landscape Formation one in Weil am Rhein, Germany*. Basel/Boston/Berlin, 1999.

<접수 : 2005. 8. 23>

28) Sonia Baldessarini, *Wie Frauen bauen*, Aviva, 2001, S. 176.